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변화

김영수(서강대 교수, 정치학)

1. 서론

최근 북한은 체제정비사업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수정주의 날라리 풍을 빼기 위한 사상검토’를 전국으로 확산하더니, 2001년 5월부터는 체제 전반의 정비를 위한 ‘100일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¹⁾

그러나 각종 통제 장치를 통한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빠른

1) 북한은 그동안 해마다 여러 가지 명목을 걸고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을 진행해 왔는데, 주로 생산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거나 국가 행사를 앞두고 위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1년 5월 국경 도시인 양강도 해산에서 돌입한 ‘100일 전투’는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위한 것으로, 기존 ‘전투’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선일보』, 2001년 8월 6일 참조.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진전보다는 이른바 ‘북한식’ 체제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읽을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로동신문』 사설에 실린 “우리 제도가 붕괴되면 사회 내에 숨어 있던 적대 계급이 머리를 들 것이며, 사회 간부들은 모조리 처형될 것이다. 결국 계급적 원수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내용에 북한 당국의 정세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각종 소문과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철저한 통제 및 차단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후유증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자주’와 ‘민족’ 개념을 전혀 없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국가 이데올로기이자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신년사’에도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초점을 맞춘 김정일 교시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마치 주체사상이 과거 시대의 이데올로기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체사상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신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향후 주체사상의 전망은?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 의식 아래,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안고 있는 본원적 특성과 주체사상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양상, 주체사상의 체제화 과정 및 변화 과정, 주체사상의 변화 전망 등의 순으로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통치 이데올로기의 본원적 특성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출발했다고 할 정도로 소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건설해 가는 과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제시한 궤적과는 매우 달랐다. 즉, 김일성이 통치하게 된 북한에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도 없었고, 미워할 부르주아 계급도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화와는 달리 타도해야 할 뚜렷한 투쟁 상대도, 그리고 그 적을 미워할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²⁾ 그 결과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적을 밖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승계한 김일성 지배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를 계급의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사회로 전제하고 남한체제를 부르주아 착취체제로 가정하고 남한 내의 프롤레타리아를 북한 인민과 결코 뗄 수 없는 대상으로 전제해야 계급투쟁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가 설자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초기 국가 건설 단계에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는 ‘남조선 혁명’을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북한은 소련·중공·월남과는 달리 소련군 점령 아래 공산주의체제를 고스란히 ‘전수’받게 됨으로써,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자기정당화의 도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³⁾ 마르크스주의는

2) 이상우, “오늘과 내일 :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정책”,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중보판)(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388~389쪽.

3) 소련 점령군에 의한 공산화를 “외부로부터의 혁명”, “외부로부터 강요된 혁명”, “소련

19세기의 초기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그리고 레닌주의는 19세기말의 제정 러시아의 전제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모두 명백한 투쟁 대상과 개혁 대상 체제를 가지고 나타난 이데올로기들이었던 반면,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소련 점령군이 만들어놓은 공산체제를 승계 받으면서 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능을 떠 안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적이며 본원적 배경을 안고 출발한 북한체제는 그동안 반세기 이상의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매우 특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소련군 점령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공산혁명의 주·객관적인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름을 빌어 김일성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해 온 결과 ‘부자세습체제’, ‘김일성-김정일 봉건왕조체제’와 같은 용어로 평가받고 있다.

주로 북한체제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들이지만,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북한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 건설 이념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온 결과, 사회주의 진영의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변형체제를 형성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왜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특수성이 북한체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 출발한 국가가 ‘전체주의’나 ‘일당독재’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동양적 전체주의국가’, ‘유교적 공산주의 국가’, ‘가족국가’, ‘신정체제’ 등으로 평가받게 되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혁명을 지도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로 발전된 것이 아니었다. 즉, 김일성을 비롯

화물열차에 실려 온 정권”(baggage-train regime)으로 부른다. 이는 유고나 중공과 같은 토착공산주의 혁명 유형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한 지도 집단이 통치권을 장악한 후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만든 것이어서, 처음부터 현실정당화를 그 목표로 하는 방어적 사상체계의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일인지배체제에서 민주를 논할 수 없고, 이미 공산 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에 마르크스주의를 버릴 수 없으며, 북한 내에 존재하지 않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내세우기 곤란하고, 제3세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국제주의를 주장한 터에 다시 민족주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을 안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북한 통치 엘리트들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70년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발전 형태’로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내놓기 시작했다.

3. 주체사상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양상

그동안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라는 도식 아래 주체사상 이전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여기서는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보고자 한다.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과정을 대략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북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국가 건설의 개념이 인식되고 교육되는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 통일전선정책에 입각한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른바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등장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유물

사관'이 마치 인류 역사의 절대적인 발전 방향이나 진리로서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가치 및 의식 구조는 일반적인 문화 형성 유형과 같은 자연발생적이고 장기적인 생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수립계획에 의해 단기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 수립되기 시작한 당성·인민성·계급성을 강조하는 가치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강요되었다. 그리고 북한 통치 엘리트들은 봉건 사회의 관습과 친일적 사고 방식을 제거하기 위해 '애국적 민주주의'와 '반제'사상을 교육시켜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민족의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대중이 위대한 민족 국가 건설 대열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였다. 해방 후 즉시 신설된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정치제도가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되었다.

사상교육의 과제는 토지의 재분배, 공업의 국유화, 가정일로부터의 여성해방 등 제반 민중개혁 조치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설득시키는 것이었는데, 실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실행중인 개혁으로 인해 수혜자가 됨으로써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은 지금까지 소외 계층에 속했던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활용되었고, 독재는 지주와 친일분자들에게 가해졌다.⁴⁾

그러나 지식층, 종교계, 중산 계층 출신의 보수적인 전통적 관념에서 오는 저항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 관습과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북한 통치 엘리트들은 국가 건설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 주민의 생활풍습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전통문화나 관습이 설혹 국가 정책과 다소 상반되더라도 그대로 묵인하였다. 그러나 혼련된 공산당원을 핵심 요원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관 확산 작업과 의식 구조의 재정립을 시도한 결과, 1950년경에는 이전의 전

4)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68~69쪽.

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체계가 북한 사회 내에 수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북한 사회구성원들은 이전의 전통과 관습에 여전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공산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하여 강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이미 힘을 잃은 상황이었다. 마치 일제 시대의 조선 사람들의 경우처럼 내면적으로 두 개의 가치체계에서 오는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외적인 상황의 강력한 흐름에 추종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한편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탈출하여 월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 내의 저항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둘째 단계는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경제계획이 실시된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 통치 엘리트들은 농업의 집단화와 모든 사적 상공업의 국유화 정책에 따른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의식 구조 및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대중정치 교육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 계획의 기본 과제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합치되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주조하는 일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이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집단주의 정신과 문화라는 가치체계가 북한 사회에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전개된 집단주의적 노력 경쟁 운동은 사회주의적 생활을 조직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으며, 전후 복구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4년 초부터 ‘애국적 노동’이란 명목하에 ‘복구돌격대 운동’, ‘증산돌격대 운동’, ‘민청순회우수기 쟁취 운동’, ‘내각순회우수기 쟁취 운동’ 등의 각종 사회주의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청년’이란 호칭이 붙은 각종 건설 운동이 노력

경쟁 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⁵⁾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노력 경쟁 운동의 예가 1957년부터 전개된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다.⁶⁾

‘주체’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기간이었다.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⁷⁾ 이 연설은 주로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소련파, 연안파 등의 과오를 주체적인 기준에서 비판했는데, 연설 내용에 당시 북한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⁸⁾

당시 북한으로서는 1953년 휴전 이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제

- 5) 도홍렬, “북한 주민의 통제정책”, 김창순 편, 『북한사회론』(서울: 북한연구소, 1977), 200쪽.
- 6) ‘천리마 운동’은 천리마기수, 천리마기세, 천리마속도,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인민반, 천리마학교,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이중천리마작업반 등 다양한 구호와 명칭이 결합되며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력 경쟁 운동은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주조하는 인간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적극 활용되었다.
- 7) 현재 북한에서는 1930년 만주 길림성 소재 장춘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 년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이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70쪽.
- 8)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 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옹기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쏘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68-478쪽 참조.

를 복구하고, 아직까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는 김일성의 당내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상황이 각 공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주체’가 처음 등장한 1955년 말이라는 시기는 소련의 심한 내정 간섭과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파벌투쟁,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문제 등 북한 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해서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면서 김일성 중심체제에 반대하던 자들을 당의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종파분자,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대국맹종주의자,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자란 낙인을 씌워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제거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상적 무기로서 ‘주체’를 내세웠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내적 계기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소이념 분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이라는 대외적 계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국제 환경이 동서간의 평화 공존과 국제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변하게 되자 스탈린주의를 따르던 김일성은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 진영 내부와 미소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부 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제적 상황도 ‘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어느 한 쪽에의 편향 및 경사에서 오는 불이익과 피해를 모면하기 위한 노선 설정의 필요에서, 즉 실리 외교의 차원에서도 ‘주체’가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말부터 ‘주체’를 인식시키려는 교육은 국내의 권력 갈등 속에서 김일성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권력을 집중화하려는 필요성에서 전국에 걸쳐 실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8월 종파사건 이

후부터 ‘항일혁명전통’과 관련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 새롭게 활발히 전개되었다. 항일혁명전통과 관련된 교양교육이 강조된 이유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료들이 조선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중요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북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이루어진 통치체제의 정통성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1958년에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이 강조된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발간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이 엮는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많은 항일무장투쟁 관련 저술이 발간되었다.⁹⁾ 그 결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던 지도자들이 인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모든 교육에서 항일유격전통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주체사상이 체계화되는 동안 항일유격전통은 주체사상이 내재화된 가치체계 및 의식 구조를 형성해 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셋째 단계는 ‘주체’ 개념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념교육이 전국에 걸쳐 시행된 1960년 이후 1970년대 초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북한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우상화 및 자주 노선의 확립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체사상체계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50년대 후반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천리마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은 대중정치 활동의 핵심인 ‘대중노선’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개조 및 정치문화 형성 작업이었다.

1960년대 초반의 ‘청산리 정신과 방법’으로 시작된 대중노선은 1970년대 초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제시하면서 더 한층 체계화되었는데, ‘3대 혁명’을 통한 대중 동원 정치의 목적은 기술 혁명을 도

9)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72쪽.

입하여 사회를 재건하며 사상 혁명과 문화 혁명을 통해 통치 방법과 그와 관련된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었다. 즉, 기술 혁명을 통해 근대화를 위한 물질 자원을 축적하며, 사회화 과정을 활용한 사상 혁명을 통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 혁명을 통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관습, 태도, 신념, 행동 양식을 철저히 개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¹⁰⁾

4.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변화 양상

1)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55년 당 차원에서 ‘주체’의 개념이 제기된 이후 1960년대의 복잡한 대외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주체사상은 점차 그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1965년 4월,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의 연설에서 주체사상은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주체 확립에 관한 내용인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

10) “만약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낡은 제도, 낡은 사상, 낡은 활동방법, 낡은 생활습관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김일성의 말에서 ‘3대 혁명’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사회 속에 흡수하고 또한 조직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 및 제도, 그리고 의식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이다. 이 말은 거꾸로 북한이 아직까지 ‘낡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그만큼 전통사회의 유산이 뿌리깊이 박혀 있어 쉽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위의 책, 77쪽 참조.

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4개 노선이 그것이다.¹¹⁾

이후 김일성은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로동신문』의 논설에서 당의 자주노선을 천명하였는데, 당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1967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가 활동의 당면 과업인 ‘공화국정부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의 구현을 국가 모든 부문의 기준으로 제시하게 된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것으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현상은 김일성 개인 숭배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1968년경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8년 8월에 개최된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¹²⁾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1969년의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만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¹³⁾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관점은 1970년에 개최된 제5차당대회를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¹⁴⁾

11)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78~329쪽 참조. 주체사상의 4개 노선의 구체적 내용 및 제시시기에 대해서는 Ho-min Yang, “Juche Idea :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hong-Shik Chung, Gahb-chol Kim(eds.), *North Korean Communism : A Comparative Analysis*(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p. 156~168 참조.

12) 『로동신문』, 1968년 8월 30일.

13) 『로동신문』, 1969년 4월 29일.

14) 1970년 제5차당대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서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은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1972년부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즉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점차 보편적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가게 된다.¹⁵⁾ 즉, 주체사상에 자주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 원리’를 도입하면서 이론적 체계화 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¹⁶⁾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보다는 독창성이 강조된 ‘김일성주의’로도 불려지는데,¹⁷⁾ 이는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인 숭배 현상의 이론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70년대의 주체사상 체계화 작업은 주체사상을 단순한 노선 차원의 것이 아니라 철학적 원리를 가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제6차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이후, 1982년에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며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불분명하게 다루어지던 ‘철학적 원리’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입장에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사회력사 원리’와

1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90~391쪽.

16) 그 결과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이 바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17) 1973년부터 통일혁명당이나 재일 조총련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1974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주체과학토론 전국집회에서 ‘김일성주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89쪽.

‘지도적 원칙’이 제시되어 마치 김일성의 거의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 담을 수 있는 체계화가 시도되었다.¹⁸⁾ 이런 체계화 작업은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1985년에 발행된 『위대한 주체사상총서』(전10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주체사상은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형태로 처음 제시되고, 1970년대에 철학적 원리가 도입된 후 1982년의 김정일에 의해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이 다듬어지면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인 이른바 ‘주체사상의 전일적 체계’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체계화 과정을 볼 때, 주체사상에는 ‘주체’ 이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으며, ‘주체’ 제기 이후의 북한의 대내외의 ‘역사’와 오래 전부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체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체제 출현의 생래적이며 본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주체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사회개혁 목표와 관련하여 근로 대중의 해방과 근로 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 개인소유제의 부정, 전체주의적 가치관 등의 마르크스주의적 요소와 혁명의 성취 방법에서 당 중심의 대중 동원을 주축으로 하는 레닌주의적 요소가 사상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의 출현 과정에 있다. 즉, 토착 세력에 의한 혁명을 거치지 않고 소련의 적극적인

18) 주체사상의 ‘탈마르크스-레닌주의화’ 경향은 1980년 제6차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과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의 지도사상 관련 조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후원 아래 출현한 정권이었기에 권력의 정통성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순수성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주체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기본 골격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의 구조와 그 운영 방식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계급투쟁 및 유물사관, 잉여가치론 등을 떠나서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며, 역시 북한의 정치체제의 구조 및 운영 방식도 레닌주의 이론인 집단주의 원리, 제국주의론, 직업혁명론, 당의 항도적 역할론, 민주집중제 원리, 새 사회주의자적 생활 규범 또는 행동지침 등을 벗어나서는 그 분석이 불충분하다.

둘째,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북한체제는 원래 ‘가지지 않은 자들의 독재’라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수용하여 수립된 정치체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체제는 ‘봉건왕조체제’, ‘부자세습체제’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가지지 않은 자들로 시작된 ‘좌’의 전제 형태가 오늘날 강한 자, 그리고 우수한 자의 지배 형태인 ‘우’의 전제 형태로 바뀌어 왔음을 뜻한다. 이런 특성은 수령의 절대적인 권한과 특출한 자질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후계자론에도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체사상 이론체계에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전통문화의 영향력과 이를 통치 차원에서 활용한 북한 통치 엘리트들의 통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공산화 과정에서

전통적 봉건성을 씻어내는 과도기로서의 혁명적 근대시민사회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조의 정치사회 구조가 일제 식민통치를 지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조선조 전통 사회의 사회 작동 원리인 삼강오륜에 따른 가부장적 전통, 주자학적 왕도정치사상, 전통적 중앙집권통치 경향 및 관료제 전통, 신분제에 따른 사회 구조와 계급 의식, 그리고 일제의 무단적 식민통치, 관존민비적 사고 방식 등의 전통적 요소가 존속될 수 있었다. 한편 이런 문화적 요소를 지배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던 통치 엘리트들의 통치 철학이 결과적으로 주체사상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배태시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 풍토와 결합하여 레닌주의를 낳고 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 문화에 접합되면서 모택동 사상으로 각색되었듯이, 해방 이후 소련에 의해 유입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전의 전통문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제적 권위주의적 특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는 레닌주의에서의 일당지배체제를 일인지배체제로 변형시킴으로써 레닌주의에서의 일당독재론과도 다른 통치 형태를 만들어냈다. 즉, 레닌은 사회주의를 위해서 전제주의를 내세웠던 반면, 북한은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김일성 수령을 위하는 전제주의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셋째, 강한 민족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 특성은 이미 '주체'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수립 초기 단계에서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족문화와 민족역사연구가 강조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주도하던 시기였고, 더욱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으로서 민족

주의를 내세워 소련에 대한 반사대주의적 행동을 할 수 없었다.¹⁹⁾ 그러던 중 1950년대 중반의 소련 내 반스탈린 운동과 당내 권력투쟁이 빚은 국내외적 절박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가 제기되면서 통치 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적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의 기제로서 반사대주의적 입장의 ‘주체’를 강조한 것은 전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한민족의 역사가 바로 외침에 대한 끈질긴 항쟁, 인접한 강대 세력들 사이에서의 민족적 자주국가로서의 존속과 발전, 고유한 민족문화전통 보존의 노력 등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통치 엘리트들이 제기한 ‘주체’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일제식민 경험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결국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북한 통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필요성과 전통적인 반사대주의적 정향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주체’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 수립 당시부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최근까지도 ‘민족주의’를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으로 가장하는 부르주아의 사상”이라고 부정하고 있다.²⁰⁾ 그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주성’,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대단결’, ‘사대주의 반대’, ‘자력 개생’, ‘민족적 자주의식’ 등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인민들의 정치사상 교양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원칙을 형식상 고수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사회에 내재화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정향에

19) 김영수, “북한 역사관에 나타난 유물론”, 『동아연구』, 제24집(1992), 163~166쪽.

20)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236쪽.

편승, 이를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적학적 요인으로 인해 일찍이 민족 의식 내에 잠재해 있던 성향,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반미 의식을 자극하여 잠재 의식의 현재화 및 정치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온 통치 전략에서 비롯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이런 특성은 궁극적으로 김일성 개인 숭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 그이께서 세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산다는 우월감,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영예, 그이의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다.²¹⁾

결국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는 김일성에게 있는 것이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적 특성에는 흔히 말하는 민족 및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쇼비니즘에 가까운 폐쇄적 민족주의 특성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역사와 통치 엘리트의 통치 철학과 정권 수립 이전의 전통의 영향력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429쪽.

2) 이데올로기적 '기치'의 변화 양상

1982년 김정일에 의해 이른바 '전일적 체계'를 갖춘 주체사상은 제일 먼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69년에 제기된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파생된 것인데, 그 근간은 유기체적 체제관이다.

생명의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당조직과당이 영도하는 정치 조직의 한 성원으로 조직 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령과 혈연적 관계를 맺을 때 정치적 생명을 받게 되고 유지·공고화됨을 강조한다. 즉, 수령-당-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내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능가하는 사상이 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주체사상에 결합된 또 다른 통치이론체계 및 용어는 '조선 민족제일주의론'과 '우리식 사회주의론'이다. '조선 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봉기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는 의도에서 주조된 논리체계이다.²²⁾ 즉, 조선 민족은 소련과 동구권 등의 사회주의 진영과는 '핏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걷는 방식에서 독자성을 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 결과 북한은 독자적인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²³⁾

22) 고유환, "김정일의 위기 대응과 생존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2000), 20~25쪽 참조.

23)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영원불멸의 타월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리민족제일주의’ 강조는 1989년 간행된 고영환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민족제일주의의 본질과 기초는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형성되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며, 이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혁명전통과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 마침내 그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게 됨”을 역설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⁴⁾ 민족 자주성의 강조는 1991년 김정일의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인민 대중보다 민족이 우위임을 명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이론체계에서 민족이 계급의 상위에 서는 개념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0월 사회과학원의 고고학 보고서를 근거로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임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체의 나라’ 창건자를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 환치시킴으로써, 평양 중심의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주체성을 높이고 ‘단군’에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통치의 정통성의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²⁵⁾ 1993년 5월의 고구려 동명왕릉과 1994년 1월의 고려 태조 왕건 왕릉 복원과 함께 최근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일련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사업’이 바로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주체사상에서 사회주의적 색채와 계급적 관점을 완화 내지는 은폐시키는 대신, 민족주의적 색채를 전면화시켜 민족적 동기를 크게 강화하려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전략적 활용과 깊은 연관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24)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평양 : 평양출판사, 1989), 66~198 참조.

25) 김영수, “북한의 민족주의 부각 및 역사재해석 실태와 그 대응방안”, 『정책연구』, 제 1호(1995) 참조.

이 있다. 요컨대, 1980년대 중반 이후 밀어닥친 국내외의 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방어기제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나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북한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명분과 논리를 창출해 낸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부쩍 강조하고 있는 ‘민족대단결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민족대단결론’을 내세움으로써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론을 차단하고, 통일전선전략의 전개 속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간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김일성 사후 ‘붉은기 사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며 ‘구호’라고 할 수 있다.²⁶⁾ 즉, 주체사상을 대신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시대적 구호’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데올로기의 주요 구성 요소인 미래상 제시, 현실 설명 능력, 현실과 미래의 연결체계에 대한 이론적 틀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붉은기 사상’의 독자적인 이론적 체계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혁명의 상징을 나타내는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주체사상의 대체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붉은기 사상’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제시된 일종의 정신적 단

26) ‘붉은기 사상’은 1994년 10월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에서 “이 글은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논설이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에 게재되면서부터 북한의 각종 언론보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6년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를 강조하면서부터 붉은기 사상의 비중은 더욱 두드러졌다.

결을 위한 ‘모토’ 내지는 ‘구호’라고 볼 수 있다. 즉, ‘붉은기 사상’은 위대한 령도자인 김정일과 북한 주민인 대중을 하나로 잇는 가장 강력한 구호이며 윤리인 ‘일심단결’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상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신과 그로 인해 초래된 북한체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사적으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현재 ‘붉은기 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에서도 ‘붉은기 사상’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붉은기 사상’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기치이자 모토였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통치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독점한 김정일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유도하기 위한 선동사업으로서 ‘붉은기 사상’과 ‘붉은기 철학’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상이 쉽게 끼여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의 기치’라는 대중적 용어 대신에 ‘붉은기 사상’과 ‘붉은기 철학’이 회자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1980년대 이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민족대단결론’, ‘붉은기 사상’, ‘붉은기 철학’ 등, 언뜻 보면 주체사상의 대체 용어 내지는 대용 이데올로기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가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강성대국의 길’이란 용어가 자주 눈에 띄면서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통일강성대국’이란 용

27) 북한에서 ‘붉다’는 말은 이른바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이라는 뜻으로 ‘붉은 동무’, ‘붉은 마음’, ‘붉은 사람’, ‘붉은 탄알’ 등으로 말을 만들어 쓴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붉은 색을 상징색갈로 선호하고 있다. 『문화어 학습』, 4호(1967) 참조.

어가 부쩍 등장하고 있다.

이것 모두 주체사상의 틀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치’ 내지는 ‘구호’이며, 그 시대 상황과 조건에 맞는 이데올로기적 변용물이다. 그만큼 주체사상이 이데올로기적 가변성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사상의 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 그 자체”라는 김일성의 말과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으며 시대적, 력사적 조건과 무관할 수 없다”는 김정일의 지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²⁸⁾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체제 내에서 일정한 자기 구속력을 유지해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기수정적’인 변용을 실행해 온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민족대단결론’, ‘붉은기 사상’, ‘붉은기 철학’, 그리고 ‘통일강성대국’ 등이 그 대표적인 변용의 예이다. 요컨대, 주체사상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논리와 명분을 갖춘 용어를 이데올로기적 ‘기치’ 또는 ‘구호’로 차용함으로써 북한체제 전반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그 포괄성과 총체성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통치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갖는 강점이다. 동일한 언어의 지속적인 반복이 일상화되는 경우, 그것이 인민 대중에게 주는 설득력이 그만큼 반감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체사상의 탄력적인 변화 양상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는 동안 주체사상은 북한체제 내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기여해 왔고, 국가 신앙적 차원의 정통성 확보와 체제 유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 동원의 기능, 대남혁명과

28) 김일성,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파한 담화”(1972년 10월 6일),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21쪽;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70쪽.

통일 노선의 합리화 및 대외 정책의 정당화 기능, 권력 세습의 정당화 기능, 국내외적 도전에의 자기방어 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주체사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김일성·김정일 가계에 대한 미화 및 절대화 작업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정립해 왔을 뿐 아니라, 절대적 권위와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창출되도록 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주체사상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 세습체제의 합리화 기능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각 단계마다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김일성 수령체제의 계승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 왔다. 이와 더불어 유일적 후계체제의 논리 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혁명적 수령관, 지도자론 등을 개발하여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꾸준히 학습시켜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세습적 권력 승계를 합리화시키고 기정 사실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주체사상은 주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 이론으로 교화시켜 견고한 단결을 맺게 하는 결합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중동원의 극대화 기능을 추구해 왔다. 또한 ‘수령에 대한 충성심’, ‘혁명동지간의 형제애’라는 가치 주입을 통해 체제 운영 원리의 하나인 집단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증오에 기초한 인내심 강조는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자기방어의 기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기능은 1980년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고 그 절대적 권위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규정하고 인민 대중에게 주체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

할을 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이 제창한 주체의 영도 방법, 혁명적 군중 노선의 관철을 강조했다.

결국, 상황에 따른 논리와 명분의 변용과 차용을 통해 주체사상은 통치의 정당성과 체제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관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 사회구성원 전체를 규제하는 이른바 북한식 체제의 ‘정치문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 전반에 ‘주체’가 관통하고 있고 내재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는 주체사상에 의한 ‘주체’가 하나의 강력한 문화체계를 이루고 있다.²⁹⁾

5. 향후 전망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독창적인 운명 개척 원리와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천명한 위대한 사상”이며,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해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처지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자기 발전의 끝없는 행로를 걸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전일적

29) 1972년 10월 2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주체사상은 봉건윤리에 기초한 전통적 정치문화에 대신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로 등장했으며 이제 다가올 10년 동안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내 나침반이 되었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은 바 있는데, “주체사상이 곧 새로운 정치문화”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는 전통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던 위치에 주체사상이 대신 들어섰다는 뜻과 함께, 유교 이데올로기 중심의 전통정치문화에 대신하여 주체사상에 맞는 새로운 문화체계를 형성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체계로 발전시켜 왔음을 학습시키고 있다.³⁰⁾ 그리고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을 결정지어 온 최고의 지도이념이며, 당과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임을 주입시키고 있다.

주민들도 주체사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주체사상을 대체할 대항 이데올로기를 한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통치 이데올로기의 효용성에 대한 불만은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통치 이데올로기 자체의 정당성을 조직적으로 거부할 정도의 행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주체사상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의 핵심인 ‘아버이 수령 김일성’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주석’으로 섬기면서 ‘위대한 아버지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앞세워 김일성의 권위를 그대로 체제 유지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선대수령’의 위신을 그대로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 2002년 김일성 90회 생일(4. 15)을 같은 해 김정일의 60회 생일(2. 16)보다 앞세우고 있는 최근 북한 사회 분위기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이 김일성 없이 주체사상이 온전할 수 없고, 주체사상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북한체제 자체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 및 이론 체계를 볼 때, 주체사상의 핵심이 ‘아버이 수령 김일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김일성은 단순한 권

30) 현재 주체사상 학습은 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지도 아래 각급 당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상통제는 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당의 외곽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며 각급 학교와 언론 매체를 교육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주의형 통치자가 아니라 북한 인민의 '아버지'로 각인되어 왔으며, 특히 이런 권위 관계가 수령 - 당 - 인민 중심의 체제 조직 원리에 반영되면서 권력이 사랑과 은혜로, 통제가 귀속감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요구와 의지가 공권력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체제의 원동력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모두 김일성 수령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북한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주체사상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주체사상은 체제 내에서 일정한 자기 구속력을 유지해 오면서도 상황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기 수정적'인 변용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일 시대에도 큰 이상 없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초래한 대내외의 위기에 당면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라든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시도와, 민족 개념에 기초한 '통일강성대국'을 앞세우고 있는 데서 주체사상의 생명력과 자기 수정적인 적응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권력 승계와 체제 유지를 위해 그 이론적 체계를 경직시켜 왔고, 더욱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하는 필요성에 의해 주체사상이 지닌 사회 발전의 역동성을 약화시킨 결과, 현재 이데올로기로서의 '자기 수정적'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주었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변성을 감안하면 주체사상의 운용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함께 세습체제를 정당화한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란 점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의 급격한 위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도 주체사상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체제의 폐쇄성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주체사상이 체제 유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폐쇄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회구성원들의 이동의 자유와 대외 정보 접촉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형성된 지상 낙원이라는 이른바 ‘복토’ 관념에 기초한 민족적 자부심은 폐쇄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취약성과 한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김일성 없는 공백은 김정일의 존재로 메워 나갈 수 있으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체제 당면 과제가 체제 개방과 함께 올 때, 이를 기존의 주체사상체제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매우 궁금하다.

불가피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 지역의 한정, 개방에 대비한 요원 훈련 등 나름대로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적인 노력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체제 폐쇄성의 유지가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위상을 결정짓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김덕유,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

- 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제1호(1997).
-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_____, 『김일성 선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정론 :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1985).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서울 : 경남대학교출판부, 1981).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로동신문』

<2차 자료>

- 고유환, “김정일의 위기 대응과 생존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
(2000).
- 김영수, “북한 역사관에 나타난 유물론”, 『동아연구』, 제24집(1992).
- _____, “북한의 민족주의 부각 및 역사재해석 실태와 그 대응 방안”,
『정책연구』, 제1호(1995).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 한울, 1987).
- 도홍렬, “북한주민의 통제정책”, 김창순 편, 『북한사회론』(서울 : 북한연
구소, 1977).
-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
계”,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1999).
- 신일철, “북한의 국사관 형성 : 1950년 스탈린 민족이론 수정과 1956년
이후 북한 교조의 민족사관화”,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

- 석』(서울 : 사회발전연구소출판부, 1987).
- 이상우, “북한의 오늘과 내일 : 정치이념, 사회변화와 대남정책”, 『한국
의 안보환경』, 제2집(증보판)(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 역
사비평사, 1995).
-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성장,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2호(2000).
- _____,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2호
(1999).
- 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92).
- Yang, Ho-min, “Juche Idea :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hung,
Chong-Shik, Kim, Gahb-chol(eds.), *North Korean Communism : a
Comparative Analysis*(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Abstract)

The Ruling Ideology of Nor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Young Soo Kim (Sogang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e North Korean state, lead by an official political ideology, states in its constitu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y by the chuch’e [*juche*] idea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us, du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its overwhelming practices, North Korea has created its own unique society.

In the past fifty-six years Kim Il Sung and his son and successor, Kim Jong-il, have made enormous efforts to make North Korea a socialist state. Virtually the entire population has been re-educated to accept the *juche* ideology as the sole value system. As a result, the North has been transformed into one of the world’s most thoroughly socialized societies. In North Korea, social changes are deliberated by the leaders with the desire of transforming the people and the social structure into a preplanned mold. In a word, the *juche* ideology is both the spinal cord and the skeletal structure

of the entire social system.

Social changes, however, cannot be controlled entirely by political planners no matter how carefully they may seek to manage affairs. There is a powerful force called historical change that alters society, overwhelming human control. Even revolutionary political ideologies are essentially conservative and do not usually carry self-correcting mechanisms. Well-formulated political ideologies are normative systems, in which prescriptions for action are deduced from value judgements. These judgements reflect the ideas of one era. However, once formulated they cannot be easily changed because they are tied to so many interrelated derivative propositions.

Societies change, but not political ideologies.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conflict rises between societies and static political ideologies; the more rigid the political ideology, the more severe the conflict.

Key Words: North Korea, Political Ideology, Thought of Kim Il-Sung, juche ideology, Continuity, Change.